

第三分野(政治)

退溪의 政治思想

發表者 姜 周 鎭(前國會圖書館長)

《目 次》	
I. 自銘에 나타난 政治觀	和親政策
II. 戊午辭任疏에 나타난 政治思想	V. 戊辰經筵啓劄와 民本政治
III. 戊辰六條疏와 그 思想	VI. 賢人政治論
IV. 甲辰乞勿絶倭使疏와 對日	VII. 聖學十圖와 天命思想

<概 要>

退溪는 정치사상가라기보다는 철학자요, 정치가나 관료라기보다는 朱子學者였다. 따라서 정치사상이나 이론을 전개한 일은 없다. 다만 退溪의 著書중에는 간접적으로 정치사상에 관련된 저술이 있고, 왕에게 올린 啓辭·啓言·進言·奏達·上疏·策論 그리고 辭任疏중에는 그의 정치사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글속에서 退溪의 정치사상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1) 自銘에 나타난 政治思想

自銘은 退溪가 생존할 때 스스로 자신의 一代記를 적어놓은 것으로서, 그의 人生觀이 잘 표현되어 있다. 退溪가 산 시대는 戚臣과 奸臣들이 권력을 잡고 士林들을 모해하던 때였으므로 그들과 같이 조정에서 일하는 것을 싫어하는 風潮가 있었다. 退溪도 이러한 시대풍조에 따라 出仕하기를 매우 주저했으며 왕을 보좌하는데도 매우 조심했다. 그리하여 벼슬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싫어하고 물러가서 學問하는 즐거움을 가지려 했다.

自銘을 보면 宣祖大王이 관직을 내려 여러번 불러 올렸으나 退溪역시 그때마다 辭退했다. 그 이유는 척신이나 간신들의 不當한 공격을 싫어했기 때문이다. 自銘 중의 「娑婆初服 脫略衆訓」이란 글은 이를 말해주고 있다. 더구나 뒤되는 溫溪 李壘가 明宗大王때 乙巳士禍에 물리게 됐는데 退溪역시 乙巳名人들과 그 정치사상을 같이했다.

自銘에 보이는 「進行之踏 退藏之貞」이란 글도 나아가면 간신들의 공격을 받게 된다는 뜻이니, 이로써 은퇴하여 공부하려 했던 것이다. 즉 그는 正義에 입각한 賢人정치사상을 가졌고 정치의 理想을 堯舜시대의 天命德治에 두었다.

2) 辭任疏에 나타난 政治思想

退溪는 처음 관직을 받고 왕을 도와 좋은 정치가 되도록 힘썼으나, 왕을 둘러싼 척신과 간신들 때문에 결국 관직을 물려서고 말았다. 退溪가 辭任狀을 올린 것이 진후해서 36회, 辭任啓는 1회, 辭任疏는 3회에 달한다. 이 가운데 辭任疏에 비교적 意見이 많으므로 그중에서 대표적인 戊午辭任疏에 나타난 그의 정치사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老衰해서 政務를 감당할 수 없을 때는 그 職을 물러나야 한다.
- ② 才能이 부족하거나 적합하지 않을 때는 그 職을 물러나야 한다.
- ③ 그 職責에 맞는 人材를 선임해야 되며 적재적소에 人物이 배치돼야 한다.
- ④ 公職者는 책임을 통감하고 위로는 上官 밑으로는 士林이나 백성들에게 지탄받았을 때에도 進退之節을 지켜서 물러나야 한다.
- ⑤ 한 나라의 정치지도자는 반드시 學問과 德望이 있어야 한다. 즉 修身도 잘하고 齊家도 잘하는 인격자라야 한다.

3) 戊辰六條疏와 退溪의 政治思想

戊辰六條疏는 退溪의 상소문 중 가장 정치적 의견이 많은 것으로서

退溪의 政治思想

그가 大提學에 임명됐을 때 새로 入承大統한 宣祖를 위해 올린 것이다. 대왕이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한 정치의 근본문제에 관한 의견을 여섯 항목에 걸쳐서 올린 상소문이다.

- 제1조 繼統을 증히 여겨 仁孝를 다할 것.
- 제2조 讒訴를 막아서 兩宮을 親하게 할 것.
- 제3조 聖學을 돈독히 하여 政治의 근본을 세울 것.
- 제4조 道術을 밝혀 人心을 바로 잡을 것.
- 제5조 腹心을 미루어 耳目을 통할 것.
- 제6조 修省을 다하여 天愛를 받을 것.

이 六條疏 중 제1조와 제2조는 王家의 집안문제를 잘 처리하라는 말이니, 곧 修身齊家를 뜻하는 것이다. 한 나라의 元首로서 帝王의 修身齊家是 곧 정치의 근본이 된다는 것을 力說했다.

제3조는 儒教哲學을 정치의 기본으로 삼으라는 것. 말하자면 堯舜시대의 賢君의 德治를 再現하라고 역설한 것이다. 따라서 人君은 학문과 덕망을 兼備해야 된다고 했으니, 文治主義와 德治主義 사상을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4조는 天命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서 天命에 순응하는 정치를 하라는 것. 天命에 순응하는 정치만이 백성을 잘살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니, 民本主義 사상의 표현이라 볼 수 있다.

제5조는 退溪의 독특한 사상이다. 國家를 人體에 비교하여 국왕은 元首로서 머리와 같고 정부는 腹心과 같고 臺諫은 耳目과 같다고 했는데 이는 國家有機說과 같다. 백성이나 정부가 없어도 국왕이 있을 수 있다는 絕對君主 사상이 아니라 元首는 人體의 머리와 같으므로 胴體가 없으면 머리가 있을 수 없고 耳目이 없으면 행동할 수 없으므로 일종의 國王機關說과 같다. 당시로서 이같은 생각은 참으로 탁월한 思想이라 할 것이다.

제6조는 국왕이 백성을 다스림에 있어서 天命을 두렵게 여겨 修養하고 操身해서 위로는 天과 밑으로는 백성의 뜻을 받아들이는 雅量과 反省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니, 敬天愛民의 사상이라 하겠다. 이것도 民本民主 사상의 표현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

4) 甲辰勿絕倭使疏와 國際平和主義思想

이는 退溪선생이 日本과 和親政策을 써서 국가간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上疏한 글이다. 이로써 退溪는 私感이나 感情을 버리고 國交는 오직 국민의 利害관계를 생각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名分이나 義理에 어긋나는 처사를 해선 안된다고 주장하고 請해온 和親을 저버리지 말라고 부탁하고 있다. 이는 退溪의 國際平和主義 사상의 표현이라 볼 수 있다.

5) 戊辰經筵啓劄과 民本主義思想

退溪는 判中樞府로 임명되면서 經筵에 나아가 講하게 되었는데, 이때 그는 國防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軍役의 공평을 주장하여 精兵主義를 역설했다. 그러나 國防도 民生문제가 先決임을 내세우고 국민의 衣食住에 注力해서 백성을 살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退溪의 民本主義사상을 엿볼 수 있다.

6) 賢人政治思想과 退溪의 史觀

退溪는 公私의 구별을 대단히 중요시했다. 君主나 지도자는 公事와 私事를 분별하여 公을 위주로 행동하고 政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公私를 분별하려면 우선 나쁜 慾心을 버려야 한다고 말하고 그것을 이룩하려면 學問을 깊이하여 天理를 깨달아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같이 학문이 깊고 天理를 아는 사람을 賢人으로 보고 이러한 賢人이 敬을 본심으로 살아 天命에 충실할 때 政치가 잘된다고 주장했다.

7) 聖學十圖와 天命思想

退溪는 다른 朱子學徒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攝理하는

退溪의 政治思想

하늘이 天上에 있다고 想定하고, 이 天命에 좇아 백성을 다스려야 聖人이 지배하는 理想社會가 이루어진다고 했다. 退溪는 天命이 인간사회에 내려지는 것을 圖表로 그려 왕에게 바쳤는데 이는 그의 天命思想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I. 『自銘』에 나타난 政治觀

退溪는 원래 政治思想家라기보다는 學者이기 때문에 그의 政治思想을 추출해 내기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우선 그의 自銘, 辭任疏, 策疏 등에서 간추려 보코자 한다.

退溪는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自銘』을 스스로 지었는데, 이는 退溪의 思想을 단적으로 표현한 名文으로 자기의 生涯를 몇 줄의 四言詩로서 要約한 心懷文이도 하다.

이 詩文 가운데 「晩何叨爵」이란 말이 보이는데 그 뜻은 「晩년에 어찌하여 벼슬을 받았던고」하는 迷懷이며, 또 「爵辭愈嬰」이란 귀절은 「벼슬을 마다해도 자꾸만 내려진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退溪의 官路는 자진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예전에는 개인의 榮達과 家門의 영광이 오직 官職의 高下에 달려 있었으니만큼 退溪도 官職의 登龍門인 大科에 응하게 된 것이었고, 공부가 出衆하므로 합격되고 합격되고 나니 自動적으로 官界에 들어서게 된 것이다.

官界에 일단 들어서면 實力本位로 배치되게 마련이니 退溪는 자연 翰林의 要職에 앉게 되었고, 要職에 앉게 된즉 임금을 가까이 모시게 되고 가까이 모시게 된즉 反對派가 생겨서 處身이 어렵게 되는 일이 적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므로 退溪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도 있다. 「進行之踏 退藏之貞」——「나아가면 넘어지니, 물러나서 숨어살겠네.」

이리하여 先生은 벼슬을 버리고 陶山鄉里로 돌아와 글 읽고 後學들을 가르치며 餘生을 보내게 된다. 「婆娑初服 脫略衆訓」——「平服으로 갈아 입고, 못 비방을 떨쳐버렸네.」 朝廷에 있을 때는 잘했느니 잘못

韓國의 哲學 第四號

했느니 批評과 非難과 稱訟이 많았지만, 지금 이같이 글 읽는 백성이 된즉 그같은 雜言을 안 듣게되어 참으로 편하다는 뜻이다. 높은 德과 修養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감히 느낄 수 없는 境地에 이른 것이다.

이와같은 文意로 살펴보면 先生은 합당치도 않은 雜言을 싫어했고 들어선 안될 사람한테 稱訟과 非難을 받는 것이 마땅치 않아 官界를 물러나려 했으며, 당시 王을 둘러싼 臣下들에게 불평이 있고 그들과 뜻이 맞지 않아서 벼슬자리를 떠난 것이다.

退溪의 政治觀은 乙巳士禍때 화를 입은 仲氏 溫溪 李壘, 晦齋 李彥迪 등 乙巳名賢들과 그 思想을 같이했다고 볼 수 있는데, 先生은 靜庵이나 晦齋와 같이 至治主義 政治思想을 가졌다고 하겠다. 참고로 『自銘』全文을 例示하면 다음과 같다.

生而多癡	壯而大疾
中何嗜學	晚何叨爵
學求愈遒	爵辭愈嬰
進行之殆	退藏之貞
深慙國恩	直畏聖言
有山巖巖	有水源源
婆娑初服	脫略衆訓
我懷伊阻	我佩誰玩
我思古人	實獲我心
寧知來世	子獲今兮
憂中有樂	樂中有憂
乘化歸盡	復何求兮

II. 戊午辭任疏에 나타난 政治思想

先生이 大科에 급제한 것은 中宗 28년 나이 33세 때이며, 은퇴를 결심한 것은 明宗 元年 45세 때부터였다. 특히 明宗 4년에 豐基郡守로 外補될 무렵부터 더욱 물러날 뜻을 굳혔다. 이때 先生의 관직은 校書館校理겸 承文院校理였는데, 이 무렵에 李芑의 黨이 先生을 신랄히 공격하고 모함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明宗 2년 安東府使로 임명되

退溪의 政治思想

었으나 赴任하지 않았다. 이때 이미 陶山에 養眞菴을 짓고 隱居할 것을 결심한 듯하다. 이때부터 관직에 임명되면 연이어 辭任書를 올리는 일이 되풀이 되었다.

明宗 4년에 豊基郡守 辭退狀을 監司에게 바친 이후 先生이 마지막 辭任願을 내게 될 때까지 모두 辭任狀을 36회, 辭任啓를 14회, 辭任疏를 3회나 올렸던 것이다. 이 가운데 狀의 형식을 취한 것과 啓의 형식을 취한 것은 비교적 辭任理由가 간단하지만, 辭任疏에는 長文의 辭退理由가 적혀 있다. 筆者는 이같은 辭任願에 의해서 先生의 政治思想을 抄出해 보고자 한다.

對象官職에 따라 辭退理由도 다르지만 대략 다음 네 가지로 구분이 된다.

첫째는 身病을 이유로 辭退의 뜻을 밝혔고,

둘째는 老衰했다는 이유로 辭退의 뜻을 밝혔으며,

셋째는 才能不足을 이유로 辭退의 뜻을 밝혔고,

네째는 廉恥尊重을 이유로 辭退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李朝時代를 통해서 어느 士林이고 간에 辭退書를 올리지 않은 선비가 없고 또 이러한 辭退書는 例外없이 身病老衰와 才能不足, 廉恥尊重 등을 그 이유로 삼았던 것이지만, 뒤집어 말하면 이는 身病이나 老衰로 인해서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없는 늙은이나 病者가 官職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또 才能이 不足함에도 廉恥없이 그 자리를 지키려하는 좋지 못한 獫官輩가 많았음을 알 수 있고, 이것이 李朝의 士林이나 退溪는 싫어했던 것이다.

그러면 先生의 辭任疏중 대표적인 것이라 할 戊午辭任疏가 제출된 당시의 政治背景과 그 속에 담긴 先生의 思想을 살펴보기로 하자.

戊午 전전해인 丙辰年(退溪 56세 때)에 左相 尚震과 趙士秀 등이 先生의 登用을 건의했고, 또 戊午年(明宗 13년)에는 領議政 沈連源과 大提學 鄭士龍등이 先生의 登用을 經筵에서 王에게 啓請하니 王은 곧 先生을 召命하였다. 이때 辭退하겠다는 疏를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臣이 듣건대 옛날의 先王은 사람을 登用함에 있어서 才能을 참작하여 責任을 맡겼다고 합니다. 즉 큰 사람은 크게 쓰고 작은 사람은 작게 썼으며 크지도 작지도 않은 사람은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혹지 不幸히도 잘못 판단하여 사람을 登用하였을 때, 그 사람이 자기의 才能이 합당치 않음을 스스로 깨닫고 물러날 것을 請하면 이를 그대로 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適才適所에 사람을 앉혀야 大臣이 宰相의 직책을 못다한다는 非難을 듣지 않게 되고 小臣이 일도 못하면서 祿만 타먹는다는 허물을 쫓할 수 있으며, 어진 사람이 그 자리에 있고 能한 사람이 그 職에 있어서 다 함께 忠誠을 다하여 政治를 바로할 수가 있습니다. 즉 才能이 부족한 사람은 野에 물러가 있도록 允許해 주어야 자기 분수에 따라 제 힘으로 살면서 禮儀와 廉恥를 지켜, 밑에서 政治를 본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賢愚가 그 자리를 얻고, 禮讓이 행하여지고 治道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臣이 비록 무식하오나 어려서부터 臣道를 익히 들었사온즉, 임금의 召命을 받으면 즉시 나아가 忠誠을 다해야 되는 줄 왜 모르겠읍니까. 그러하오나 召命이 있다고 해서 한 要職을 固守하여 못사람이 비난하고 의심하는 속에서도 물러갈 뜻을 변치 않는 것은, 그 나아감이 임금 섬기는 義理에 크게 어긋나지 않을까 두려워서입니다.…」

대략 이같은 辭任願의 이유를 分析해 보면 두 가지 점이 지적된다. 그 하나는 官職에는 賢愚와 能力에 따라서 人才를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고 主張한 것이고, 그 둘은 非難을 받아가면서 한자리를 固守함은 옳지 않으므로 마땅히 公職者에게는 進退之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辭退疏를 통해서 본 先生의 思想은 당시 朝廷에 無能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자리잡고 버티고 있는 것에 크게 不滿이 있었다는 점이고, 또 奸惡한 무리들이 朝廷에 있어서 착한 사람을 헐뜯고 공격하므로 그들(주로 威臣과 奸臣)과 같이 일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점이라 하겠다. 따라서 先生은 賢臣은 奸臣이나 威臣과 함께 朝廷에서

退溪의 政治思想

일할 수 없다는 思想을 가졌으며, 또 人材가 적재적소에 配置되어야 한다는 思想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Ⅲ. 戊辰六條疏와 그 思想

明宗 22년(退溪 67세 때)에 明나라 황제가 逝去하니 明에서 使臣이 왔다. 이때 領相 李浚慶은 明나라 使臣을 맞이하기 위해서 文學士를 불러 王命으로 退溪先生을 上召케 했다. 召命을 받은 先生은 六月에 入都했는데, 그 사흘 후에 明宗大王이 昇遐하였다. 새로 王位에 오른 宣祖大王은 즉위 초부터 先生에게 官職을 계속 내렸는데, 즉위 후 곧 崇政大夫議政府右贊成을 내렸으나 사양했다. 다시 五月에 判中樞府使職을 내렸으나 사양했고, 8월에 弘文館大提學겸 藝文館大提學에 임명되었으나 또 사양했다. 그러나 뒤의 것은 允許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先生은 임금께 여섯 조목에 달하는 정치적 意見書를 올렸는데, 이것이 바로 「戊辰六條疏」이다. 이 戊辰六條疏는 退溪의 文蹟 중 가장 정치적 의견이 강한 것이므로 그의 政治思想을 논하려면 이를 考察하지 않을 수 없다. 그 六條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一조, 繼統을 중히 여기고 仁孝를 다할 것.

제二조, 讒訴를 막아서 兩宮을 親하게 할 것.

제三조, 聖學을 敦篤히 하여 政治의 根本을 세울 것.

제四조, 道術을 밝혀서 人心을 바로잡을 것.

제五조, 腹心을 미루어 耳目을 通할 것.

제六조, 修省을 정성스레 하여 하늘의 사랑을 이어받을 것 등이다.

이 여섯 조목 중 제一조와 제二조는 주로 임금의 王統과 宮內處理 문제를 進言한 것같이 政治思想과는 관련이 없는 듯 하지만, 한나라의 統治者로서 또 天意와 民意의 合一體인 임금의 仁德에 관한 것인만큼 그것은 한 개인의 德을 논한 것과는 달리 국가의 根本統治體의 完全無缺함을 주장한 것이다. 繼統을 중히 여기라는 것은 국가의 法統을 중히 여기라는 것인즉, 王位 계승자의 順位를 지키는 동시에 일단 王

위에 올랐으면 私를 떠나 公的 存在가 되라는 것을 강조한 말이다. 다시말하면 宣祖는 私적으로 볼 때 德興大院君의 아들로서 入承大統했지만 先王은 역시 明宗인만큼 그 점을 銘心해야하며, 明宗과 大王은 昭穆이 분명하므로 明宗妃에 대하여는 大王妃로서 정중한 孝道를 잊어선 안된다고 하였다. 이것은 개인으로 말할 때 修身에 해당되나, 이 修身이 治國의 근본이듯이 大王의 이같은 仁德이 곧 治國과 백성을 統治하는 근본이 된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다.

제삼조 「聖學을 敦篤히 하여…」는 帝王之學과 心法의 要로서 이것은 舜王이 禹王에게 내린 말에 그 根源이 있다고 한다. 그 말에 의하면 人心은 오직 위태롭고 道心은 精하고 하나이므로 그 가운데를 취해서 다스리라—고 했다는 것이다. 즉 聖學을 돈독히 하여 政治의 근본을 삼으라는 뜻은 政治의 근본이 聖學을 떠나면 안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보다도 法을 세워서 法대로 정치를 해야 하고, 文化的으로 정치를 해야 하며, 德化로써 정치의 근본을 삼으라는 뜻이다.

이와같은 뜻을 쉽게 일러주는 것으로서 『大學』에 「格物致知, 誠意正心」이란 말이 보이고, 또 『中庸』에 「明善·誠身」으로 나타나 있다. 말하자면 政治를 하려면 格物致知에 맞도록 해야 하고, 誠意와 正心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된다고 했다. 格物致知에 맞도록 한다는 것은 事物當然之理의 원칙에 따라 社會문제를 처리함을 말함이니 이는 곧 善政을 뜻한다. 筆者는 이것을 現代的으로 敷衍하여 ① 法治政治, ② 德化政治, ③ 文化政治를 주장한 政治思想이라 보고 싶다.

제사조 「道術을 밝혀서…」의 道術은 天道에 어긋남이 없는 政治를 말하는 것인즉, 天命에 순응하는 길을 밝히고 그 길에 맞도록 政治를 해야 된다는 뜻이다. 退溪가 「唐虞三代之 盛世에는 道術이 크게 밝아 岐路에 惑됨이 없어서 人心이 바로고 治化가 잘되었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여기서 말하는 道術은 天命을 잘 알아서 순종하면 邪術에 현혹됨이 없이 人心이 스스로 바로잡혀진다는 뜻으로 理解된다.

따라서 退溪의 생각은 堯·舜 兩王은 道術을 잘 알고 王位에 올랐으므로 天命이 백성에 잘 미쳤지만, 孔子나 曾子나 子思, 孟子 등은

退溪의 政治思想

天命은 알았으나 王位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 天命이 백성에게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 대신 天命의 思想이 어떠한다는 것을 後世에 남겨 놓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道術은 天命에 맞는 德化政治의 技術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한나라의 統治者는 天命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며, 그 天命에 따라 德化의 방법 즉 技術에 밝아야 天下가 잘 다스려진다고 했다.

제五조 「腹心을 미루어 耳目을 通해야 된다」는 말에서 退溪는 훌륭한 政治方法을 제시했다. 즉 國家를 人體에 비유한 것이다. 한 나라가 움직이자면 元首가 있어야 하고, 그 元首를 받드는 腹心이 있어야 하며, 元首의 腹心이 모두 완전하려면 耳目이 있어서 지켜주어야 한다. 그와같이 사람에게도 머리(元首)와 배(腹心)와 눈과 귀(耳目)가 있다고 했으며,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느 한 가지라도 없으면 전체 곧 人間이 지탱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退溪는 元首를 王에, 腹心을 大臣에, 耳目을 臺諫에 비유했는데, 內藏의 모든 補給을 받아야 머리가 제 機能을 발휘하며, 머리카 內藏도 耳目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면 함정에 빠져 죽을 것인즉 元首는 國體의 主體가 아니라 一種의 機關이라고 보았다. 機關이란 곧 元首의 國家機關說과 같은 것으로서 元首의 萬能과 專制君主主義를 배격하는 思想이 여기에는 담겨져 있다. 따라서 머리만으로 사람이 될 수 없듯이 元首만으로 國家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元首는 元首대로 天命에 따를 줄 알아야 하고, 大臣은 大臣대로 輔弼을 잘해야 되며, 또 臺諫은 臺諫대로 直言을 잘해야 國家가 잘 다스려진다고 했다. 退溪는 이 三者의 三位一體論을 펴으니, 이른바 임금의 國家機關說을 주장한 셈이다. 元首도 大臣을 잘 選任해야 하고, 選任하고 信任함에 있어서도 道를 지키고 私私로운 腹心이 되지 않도록 해야하며, 臺諫의 直言을 받아들여서 姦邪하고 阿諛하는 무리를 물리쳐야 한다고 했다. 私心이 가득 찬 大臣을 임명하면 元首를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利用할 것이니 자연 兇惡한 權勢者가 될 것이고, 또 硬直한 선비가 있어 그 銳鋒을 건드리면 반드시 竄謫誅戮을 가하여 賢者와 忠者가 모두 쫓겨나게 된다고 했다. 그러므로 臺諫은

어디까지나 國家的 입장에서 또 公的 입장에서 耳目 노릇을 해야지, 어느 한 權力層이나 集團의 耳目이 되거나 또 그렇게 만들어도 안된다고 했다.

제六조 「修省을 정성스레 하여 하늘의 사랑(天愛)을 이어받아야 한다」고 한 것은 한 나라의 元首인 君主는 먼저 自省해서 天命을 잘 받아들일 心的姿勢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前漢의 大學者인 董仲舒는 漢武帝에게 올린 글에서 「국가(君主)에 곧 잘 못된 일이 일어나려 할 때는 하늘(天上王)이 먼저 알고 災害를 내려서 견책하는 뜻을 알리고 그래도 君主가 自省할 줄 모르면 또 恠異를 내려 놀라게 하며, 그래도 改俊의 뜻을 나타내지 않을 때는 마침내 傷敗를 내려 天罰을 가하게 된다. 이로써 보면 天心은 원래 人君을 사랑하여 그 亂을 입히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같은 意見을 올린 것으로 미루어 退溪가 董仲舒와 같은 政治的 見解를 가졌음을 알 수 있고, 또 退溪 자신이 專制君主主義 思想을 반대했으니만큼 모름지기 君主는 항상 天命에 拒逆함이 없어야 하며 절대로 暴政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즉 專制君主가 되지 말고 民本思想에 입각해서 民爲政治를 베풀라고 주장했으며, 天命에 순응하여 行動을 조심하라고 諫한 것이다.

Ⅳ. 甲辰乞勿絕倭使疏와 對日和親政策

이 疏는 甲辰年 즉 中宗 39年(1544)에 올린 것으로 되어 文集에도 「甲辰乞勿絕倭使疏」로 적혀 있으나, 사실은 明宗 즉위 직후에 明宗에게 올린 것으로서 年譜에는 乙巳年(1545) 7월로 明記되어 있다. 中宗 5년 庚午年(1510)에 三浦倭亂이 일어나자 政府에서는 柳聘年, 黃衡 등을 보내어 平定하는 한편 日本과 外交를 끊었는데, 그후 日本이 여러 차례 잘못을 사과하고 和親을 請해 왔으나 우리 朝廷은 지난 일을 잊지 못하여 계속 拒絶해 왔다. 그래서 日本측은 甲辰年 5월에도 和親을 請해 왔으나 이해 11월에 中宗이 昇遐하고, 뒤를 이은 仁宗마저 즉위한지 일년도 못되어 세상을 떠나 乙巳年 7월에 明宗이 즉위하는

退溪의 政治思想

多難莫急한 國內事情이 重疊되매, 혹시 그들을 타서 倭敵이 우리의 南海邊을 侵犯하지나 않을까 염려되어 이 上疏를 올렸던 것이다. 이때 先生의 나이 45세, 官職은 弘文館典翰이었다.

先生은 이 上疏에서 日本이 哀乞하다시피 請해 오는 國交再開를 거절하지만 말고 和親을 유지하되 無事主義 外交政策을 취하라고 進言했다. 즉 強硬策과 溫健策을 兼用할 것을 주장하며, 中國의 歷代 邊境戎夷政策을 예로 들면서 國威를 멀어 뜨리지 않는 범위 안에 教導的 입장에서 和親을 받아들이라고 건의했다. 만약 請和해 온 것을 거절한다면 兵亂을 自招하는 결과가 될 것이고, 잘못하다가는 남쪽의 倭寇와 북쪽의 野人이 다 함께 西北에서 挾攻해 오지 않는다고 누가 斷定하겠는가? 그러므로 倭가 自請해 온 和親을 거절할 필요가 없다고 進言한 것이다. 學問하는 선비로서 國防에 기울인 이와같은 관심을 우리는 높이 評價해야 될 줄 안다.

참고삼아 原文을 제시하면,

「當今天變現於上 人事闕於下 大禍重疊 國運難否 根本確隕 邊圉虛疎 兵耗糧竭 民怨神怒 此吾東方何等時耶 夫太白晝見乃兵興之象 巨闢雖古之聖帝 明王亦不能必其禍難之不來 但當其未來則無負我致之道 及其既來則有可以應之之備如斯而已 今欲修人事以應天變而絕島夷來朝之望是可謂無自致之道乎 開致兵之端而欲以應兵象之變臣未知其可也 自我致之而我能應之 已非謹災之道 況以今之事勢未必能應之哉……

且國家已與北虜構讐 安和彼中不有諸酋之桀驁 切齒報復而謀犯邊守者乎 設使南北二虜一時偶發則撻東而西掀 衛復而背潰未識國家將何所持而能辨此乎此臣之所憂也

(『甲辰乞勿絕倭使疏』)

V. 戊辰經筵啓劄와 民本政治

戊辰經筵啓劄은 先生이 새로 즉위하신 宣祖大王께 올린 經筵啓劄이다. 즉 丁卯年 明宗 22년(1567) 2월에 明宗 임금께서 先生의 上京을 재촉했으나 수차 사양하다가 6월에야 上京했다. 그러나 身病으로 進拜치 못하고 있다가 明宗께서 승하하니 先生은 7월에 先王의 行狀을 지어 바치고 陶山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새로 王位에 오른 宣祖大王은

또 다시 先生을 召命하였다. 議政府 左贊成에 임명했으나 수차 사양했으며, 戊辰年인 宣祖元年 7월에 다시 서울에 올라와 思政殿에서 肅拜하고 사면코지 했으나 허락되지 않았다. 이해 8월 弘文館提學 知經筵春秋館事 成均館事를 제수받았고, 이어서 判中樞府事가 되었다. 즉 이때인 9월에서 12월 사이에 여러 차례 經筵에서 進講할 때마다 올린 글이 이 啓劄이다. 이 啓劄에는 先生의 政治的 意見이 많이 담겼으므로 그 중에 몇가지를 가려내어 볼까 한다.

(1) 戊辰筵啓劄一에서 先生은 國防의 중요성과 그 虛實을 논하였으니 先生은 道學에만 조예가 깊은 것이 아니라 國防問題에 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졌던 듯하다.

즉, 「지금 軍卒이 모두 낡고 피폐하여 軍隊가 있는 것 같지만 실은 軍備가 엉망입니다. 國防의 허술함은 서울이나 지방이나 마찬가지이고, 따라서 兵卒을 모집하여 不足함을 메우는 일이 火急합니다. 이는 백성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그만둘 일이 아닌줄 아옵니다.」

「國之大事 固在兵戎 今者軍卒消耗 名存實無 內外皆然 搜兵補闕 在所當急 不可以民之然咨而停罷一」

다시 말하면 國家가 가장 重히 여겨야 할 일이 國防과 軍備에 관한 문제임을 강조하여 文弱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당시의 朝廷에 일대 警告를 내렸던 것이다.

또한 先生은 당시의 解馳된 社國을 개탄하며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지금 사람들은 泰平에 젖어서 아무도 나라가 흐트러지고 망하는 禍根이 백성의 怨恨이 엉킨데서 緣由한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 怨恨은 마치 구름이 엉키고 산이 무너지는 듯한 形勢이온데 臣이 보건데 그것은 항상 백성들의 流離에서 비롯되는 줄 아옵니다.

「今人狃昇平 不知國家亂亡之禍 率由於民巖 雲合土崩之勢 恒起於民流 見臣此論…」

백성들의 怨恨은 벼슬아치들의 지나친 貪虐과 勞役, 過稅 등에서 일어나며, 이것은 또한 백성이 生業을 버리고 流離케 만들어 國力을 감퇴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하였던 것이다.

退溪의 政治思想

(2) 啓劄一에서 또한 先生은 民本思想을 강조하는 적절한 意見을 견해서 올렸다. 「옛말에 五穀 중 한 가지라도 凶年이 들면 백성이 굶주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百穀이 하나도 익지 않았으니 백성이 무엇으로 배를 채우겠습니까. 게다가 木花마저 전멸되었으니 백성이 무엇으로 몸을 가리겠습니까.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면 백성들은 모두 依持할 바를 잃고, 살림살이를 집어치고 流浪할 생각으로 붓짐을 싸게 될 것입니다.

「古法云 一穀不登 民受其飢 今則百穀不登 民何以充腹 木花掃無 民何以蔽體 飢寒切身 民無所顧籍 皆思破家流散 結包荷擔而立……」

「이같은 凶年의 참상을 목도한 四方의 監司들은 災荒을 걱정하고 救恤코자 朝廷에 계속 보고 올렸습니다. 그러나 나라에서는 아직껏 한번도 塗炭에 빠진 民生을 구하기 위한 訓諭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官에서는 백성의 집을 수색하여 壯丁이나 중들을 잡아내고 있으며, 이것을 기화로 가혹한 官員과 포악한 아전들이 奸惡하게 백성을 협박하고 侵害하니 이보다 심한 星火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로써 백성들은 살을 깎고 뼈를 끊어내는 듯한 착취를 한정없이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四方監司等官 目覩其慘 憂災恤荒報聞相繼 國家未發一號出一令 以爲拯民生塗炭之命計 方且家搜戶括漁丁獵僧 酷吏暴胥 困緣作奸 脅馳侵督 急於星火 剝膚推髓 靡有限極……」

이와같이 先生은 당시의 백성들이 겪는 慘狀을 王에게 일일이 알리고 對策의 강구를 촉구했으며, 또한 백성을 자식 사랑하듯 보살피서 잘 살게 해주는 것이 王의 첫째 任務임을 강조했다. 이것이 바로 「백성이 나라의 근본」임을 강조한 退溪의 民本思想인 것이다.

Ⅶ. 賢人政治論

先生은 또 「敬」의 사랑을 正治에까지 발전시켰다. 즉 「敬」에 대한 공부가 철저히야 마음속에 도사린 私慾을 이겨낼 수 있으며, 私慾을

이겨내야 天命에 순종하게 되고 仁義禮智의 本性의 마음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고 했다. 戊辰經筵啓劄에 비친 私慾에 관한 先生의 의견을 들어 보기로 하자.

「私라는 것은 마음의 줌도적이에요, 萬惡의 근원이다. 自古로 국가는 잘 다스려지는 날이 적고 어지러운 날이 많으므로 자칫하면 몸과 나라를 亡치기 쉬운데, 이는 임금이 私를 못 버렸기 때문에 일어난다. 私라는 마음속의 도적을 없애고 惡의 뿌리를 뽑아버리면 다시 순수한 天理가 되는데, 이같이 天理를 되찾는다는 學問에 공을 들여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私者一心之蠹賊而萬惡之根本也 自古國家治日常少亂日常多 馴致於滅身亡國者 盡是人君不能去一私字故也 然欲去心賊 技惡根以復乎天理之純 不籍學之功不可而其爲功亦難……」

즉 先生은 學問을 해야 「私」를 버릴 수 있고, 「私」를 버려야 모든 일을 當然之理에 따라 公正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賢人政治의 기본원칙을 주장했다.

그런 賢人政治는 과연 어떠한 것인가? 이를 다시 啓劄에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賢人, 즉 어진 임금은 다스리는 일을 마치 깊은 못(深淵)에 임한 듯 살얼음(薄氷)을 밟듯 조심하고 삼가면서 했다. 낮에도 마음을 굳게 다지고 밤에도 걱정했으며, 잠시라도 태만하거나 소홀해서 구덩이에 빠지지나 않을까 두려워했다. 또한 절대로 자기의 학문이나 功德이 이만하면 私邪로움에 빠지지 않을만큼 되었노라고 자만하지 않았다.」

「是以古之聖賢兢兢業業如臨深淵 如履薄氷 日乾夕惕 惟恐頃刻怠忽而有墮坑落堑之患 其心未嘗自謂 學已至不患有陷於私邪也……」

그와같이 조심스레 삼가면서 백성을 다스리는 君主라야 賢人이요, 이처럼 백성을 생각하는 정치가 곧 賢人政治라고 했다.

Ⅷ. 聖學十圖와 天命思想

『聖學十圖』는 宣祖 2년 先生이 判中樞府事로 있을 때, 王에게 聖君의 길을 밝히기 위해서 바친 것이다. 때에 先生의 나이 68세, 그 중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보인다.

「後世에 와서 人主가 天命을 받고 王位에 올라 그 責任이 지극히 重大함에도 어찌된 일인지 百姓을 다스림에 있어서 전혀 옛 聖君같이 엄숙한 데가 없고 스스로 聖人인 것처럼 여기며 王公이나 수많은 百姓위에 군림하면서 오만과 자만을 일삼다가 마침내 나라를 파괴하고 滅亡으로 이끌게 합니다.」

이 글 가운데 나오는 天命이란 무엇일까? 이같은 天命思想을 내세운 것은 退溪가 처음이 아니며, 孔子, 孟子를 비롯해서 朱子 등에게도 이미 깃들여 있다. 이 天命思想을 모든 權力的 源泉으로 받아들인 것이 곧 儒教政治觀의 원칙인 것이다. 『中庸』에 보이는 「天命之謂性 이요 率性之謂道요」하는 것이 모두 天命思想에서 온 것이며, 道學政治란 곧 天命에 맞는 政治를 뜻하는 것이다.

退溪는 또 『聖學十圖』 第九圖에서 朱子の 敬齋箴을 인용하여 敬齋箴圖를 작성했는데, 그 첫머리에 「正其衣冠 尊其瞻視 潛心以居 對越上帝……」라고 했다. 이것은 곧 「敬」을 공부하려면 「옷을 단정히 입고, 보고 듣는 것을 함부로 하지 말며, 마음을 고요히 지니어 上帝를 대하듯 하라」는 말이다. 「敬」을 배우고 실천하려면 종교적인 敬畏의 심정이 필요하다는 뜻인 듯하다. 하늘을 무섭게 여기고 땅을 두렵게 여기라는 것이 性理學者들의 공통된 思想이나, 天命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敬畏의 대상으로서 神이란 어떤 것일까? 이 문제에 관해서는 李仲虎에게 답하는 글(「答李仲虎碣文示金而精」) 가운데 보이는데 退溪集「書」의 위에 든 글의 別紙에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대저 神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하늘에 있는 神이요, 둘째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神이요, 셋째는 祭祀에 있어서의 神이다. 이 세 가

지 神이 비록 다르나 神된 所以로 말한다면 같다. 그러나 서로 다른
을 알고 또 같다는 것을 알아야 可히 더불어 神의 道를 말할 수 있다.
그리고 貴翰(李仲虎의 문의 편지)에서 말한 周子의 動無動 靜無靜의
神이라든가 晦庵의 五行의 神, 子思의 神之格思, 孔子의 方體없는 神
같은 것은 모두 理가 氣를 타고 출입하는 神(理乘氣出入之神)으로서
在天의 神이요, 程子が 말한 凝神의 神이라든가 張子의 心神의 神,
晦庵의 在人爲理의 神, 心神安定的 神같은 것은 모두가 사람에게 있
는 神을 말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單稱으로 부르는 神이다. 이밖
에 精神이니 魂魄이니 하는 다른 이름들은 모두 사람의 몸에 붙어 다
니는 것으로서 陰陽을 갈라서 말하는 神이다. 즉 陰은 精이요, 陽은
神이며, 陽의 神은 魂이 되고 陰의 神은 魄이 된다. 그러나 실은 둘이
면서 하나이다. 그러므로 通稱 모두 神으로 부를 수도 있다. 그리고
祭祀에 있어서의 鬼神으로 말하면 또 둘이면서 하나인 攄에서 붙어 다
니는 것으로서 住屈來伸하는 神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러한 氣는
聚散存亡의 情狀과 意思가 있다. 그러나 요컨대 두 가지의 神이 있는
것은 아니다.]

대체로 이렇게 神에 관해서 區別은 했지만 退溪도 天命에 관해서
정치적으로 깊이 연구한 것은 없고, 오직 哲學的으로 天命圖說이나
太極圖說로 기울어져서 순전히 理氣論으로 집중되었다.

性理學者들의 공통된 思想은 國王도 무서워하고 두렵게 여기는 在
天의 上帝를 想定했으니, 이는 필경 君主의 專制를 막고 善政을 베풀
게 작용할, 하나의 方便으로서 天命을 내세운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또한 退溪는 在天의 神을 理氣論으로 발전시켜 理乘氣出入神이라고
하여 天命이 즉 理氣다 하는 주장을 하였지만, 天命 혹은 天理의 本
體를 정치적으로 體系化하지는 못했다. 이는 우리 儒學이나 性理學者
들의 공통된 缺點이었다.